

## 「칸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4회)

朴魯哲

### 『사티아, 그라하』小論(續)

이로 보면 『칸디』의 宗教的 根本思想은 印度의 唯一한 『기타』(梵歌 gita)의 哲學詩로부터 나왔다 함은 이미 말한바 어니와 『칸디』의 受動的 抵抗主義의 宗教的 政治理想도 그실 『사티아·그라하』의 精神에서부터 醞酵되었다 본다. 이럼으로 『사티아·그라하』는 그의 中心思想으로 보나니, 이는 唯物論的 改造運動을 渴望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그 실唯一한 東洋的 精神主義의 思想에 立脚한 點으로 보아 現下 新 社會 建設에 있어 가장 異彩를 發揮하는것으로 보지 안 홀수 업다. 이럼으로 『사티아그라하』는 根本的 唯一의 宗教運動으로서 이는 印度敎의 『샤-가밧·기타』(博伽梵歌)의 哲學에 依하여 洗練된 이만치 印度民族의 宗教的 精神에 關한 現代的 產物의 特色이라 하겠다.

『칸디』는 自己친구에게 書翰을 보낼 때 다음과 가튼 句節을 썼다.

『拙弟는 英國에 渡航하기를 써립니다 定期船에 依한 南亞弗利加나 또는 印度間의 그 어찌한 交通이든지 다 不滿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 바야 그는 英國의 言語뿐만아니라, 그 物質文明까지를 惡魔視한것을 斟酌할 수있다. 이는 곳 英國이나 南亞弗利加를 往來하자면 不得已 蒸氣船을 타게 됨으로 그 物質文明의 產物인 汽船을 보기 실혀 헛든 것이다. 이리하여 『칸디』의 現代 物質文明을 惡魔視한 그 一面을 考察하지 안 홀수 업스니 『칸디』의 思想은 東洋的 古哲人의 思想 그대로의 精神的 方面에 注重하니만치 그는 古印度의 『베다』(吠타)(veda)의 精神, 『우파니○드』(奧義書)(Upanishad)의 思想, 『샤-가○·기타』(博伽梵歌Bhagavatgita)의 信念, 『라마야나』(Ramayana 羅摩王子武勇傳)의 文化에 依하여 輾轉된것으로 본다.

(博伽梵歌는 가장 著名한 上古時代의 讚歌로서 印度 古代詩聖 廣博仙人(○야사 vyana)의 作으로 보나니 西紀前 三一〇一年에 지은 것이라 하나, 的確

한 證據는 업고 혹은 印度의 考徵 學者의 말에 依하여 西紀前 四世紀쯤 지 었으리라 推測도 하나 이역 未分明한 말이라 안 暎수 업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信憑할는지 그는 讀者의 意向에 맞길뿐이다. 그런데 이 梵歌는 羅摩王子 武勇傳에 『알유나』와 『크리시나』의 問答으로서 가장 著名한것임을 거듭 말한다. 어느 倭人 譯述者는 이 『빠-가위·기타』의 漢字譯을 『摩訶梵歌』라 하였다. 그는 謬誤된 表音으로 보게 된다. 西洋의 『와-렌·헤스팅·氏』는 梵歌를 評하되『그 論調에 依하여보면 世界無類의 遠大한 思想이라』하였고, 『웰이암』존·홈볼트』는 이르되 『각 나라 言語중에 가장 優美한 唯一의 眞正한 哲學詩로다』하였다. 印度의 梵歌는 宗教及 哲學의 迂遠한 妙理를 論徵한 對話體의 歌詩로서 大宇宙의 崇嚴高迂한 精神과 그 生動의 脈搏을 隱密히 啓示한것이라 한다. 이리하여 『산디』의 宗教觀은 印度教古經의 二大典籍인 『기타』『라마야나』에서 그 特色을 發揮하였다고 본다. 『라마야나』를 『라마나야』로 쓴 倭譯書가 있으니 이는 誤譯으로 본다)

이는 純醉한 古印度의 精神과 그 思想에 根底를 둔 것으로 그 실東洋文明은 自古로 精神方面에 致重하였슴은 더 말할 것도 업다. 그의 無抵抗을 主張한 點에 잇서 그 暴力主義를 排斥하게 된 것도 東洋的인 德義 또는 精神的 勝利를 表徵한 것으로 본다. 이리므로 印度의 非 協同的 無抵抗主義는 그 精神的 方面으로 보아 暴力主義를 超越한다. 이리하여 暴力主義는 抵抗的 犧牲을 要하되 非 協同的 無抵抗主義는 그 抵抗的 犧牲을 要하지 안는다. 그러므로 暴力主義는 復讎的 行爲요, 無抵抗主義는 非 復讎的 行爲니만치 受動的 犧牲을 要하게된다. 이리하여 『산디』는 宗教的 革命思想을 發揮한 實行家로서 그 宗教的 理想과 그 獨創的 眞理를 發見한 唯一의 先覺者이다. 이러한 點에 잇서 西洋의 唯物主義的 文明은 排克할수잇다는 것이다.